

“慧眼의 旗手”

傳統과 創造에 관한 時代映像

박 영 호 — 의전건축연구소 대표

- ◎…… 60年代에서 70年代에 걸쳐 傳統에 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 ……◎
- ◎…… 의 관심 속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이 방면의 꾸준 ……◎
- ◎……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몇몇 모델들은 격렬한 社會的 反應 ……◎
- ◎…… 을 가져 오기도 했던 터라, 이러한 거론은 자칫 진부한 것 ……◎
- ◎…… 으로 여겨져 새삼스러운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건축계 일 ……◎
- ◎…… 각의 움직임은 60年, 70年代의 현상을 재현하려는 인상마저 ……◎
- ◎…… 주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타당한 것처럼 通念化 되지만 ……◎
- ◎…… 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개발도 ……◎
- ◎…… 상국의 文化的 特性으로만 보아 넘길 것인지, 아니면 달리 ……◎
- ◎…… 도리가 없는 것인지 ……◎

1. 모든 것이 변한다.

“요즘 젊은 것들……”하는 나이 든 이의 불평을 듣는다. 世上事가 변화되는 모습이 그가 간직해 온 價值基準에 어긋나 보이는 때문이다. 그 基準이 옳은 것이라면 좋은 충고가 되겠으나, 그저 막연히 간직해 온 觀念이거나 因襲에 따른 생각이라면 무념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그를 제약해 온 規範에 대하여 지나치게 고무적이며 방어적이어서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자칫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萬物은 流轉한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世上은 到處 各개 분야에서 變貌·變質되어 가고 있다.

歷史는 바로 政治·社會·經濟·思想·宗教 등 生活과 文化的 變遷사이며 변한다는 개념없이 歷史의 성립은 어렵다. 또한 변화의 개념이 없이는 進歩라는 意味도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의 生活이 얼마만큼 달라 졌느냐 하는 것은 過去와 좀더 먼 과거와 비교한다면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形狀이나 知識뿐만 아니라 生活方式·思考方式·價值觀, 심지어는 民族의 心性마저도 변화하고 만다. 그것은 스스로 모습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작은 변화에 대한 전체 狀況, 스스로의 적

응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 변화된 時代의 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모습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나 人口가 많아지면 耕作地도 늘어나야 하고 또한 경작하는 방법이 달라 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 傳統은 歷史를 지니며 우리에게 敎訓을 준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하나 그러한 가운데는 변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다.

이들테면 生命의 존엄성이나 人類의 平和와 幸福에 대한 소망과 같은 것이다. 설사 時代에 따라서 地域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등한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人間生活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요소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변해서는 안되는 것들의 범위를 넓히고 넓혀 간다면 그것은 沈默과 靜寂으로 가득 찬 세계에 이른다. 반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아주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면 그것은 커다란 混沌과 無秩序에 이르게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도록 매어 둘 수도 없고 일순간에 아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하나의 단순한 가정인 셈이나 실제 세상

사는 양자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유의해 볼만한 사항이 이런 경우다. 各者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여 어느 한 편에 치우쳐 그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소위 進歩的 改革論者들은 모든 것이 하루 빨리 변화되기를 고대하는 반면, 保守的인 사람들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 반면 傳統을 논위하는 사람 가운데는 앞서에 비하여서 훨씬 좋은 입장에 있는 경우가 있다. 보수와 진보의 좋은 점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경우다. 예를 들면 傳統의 創造的 繼承이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무런 의문의 제기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론자와 같은 입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지녀야 할 것을 지닐 줄 알고 또한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새로이 창조해야 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수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傳統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사항과 거기에 작용되어야 할 창조행위가 관심의 대상이 되겠으나, 자칫 전통의 역사적 來源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식이나 실증 자료만을 요구함으로써 전문인에게만 국한된 일로 접어 두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서투른 접근이나 안이한 해석을 회피하려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지나치게 지엽적인 사항에까지 집착한 나머지 전체 흐름의 체계적인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설사 우리가 傳統의 일 단면에 이르기까지의 소상한 지식이나 고증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흐름의 큰 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을 접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흐름을 조감할 수 있는 위치에 서므로써 흘러가는 과정으로서의 전통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어느 시기의 일 전통을, 그것을 포용하는 시대환경과의 함수관계로 설명할 경우 母社會의 역할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 형태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전통이라는 흐름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하는 사회 환경의 능동적 역할도 감지할 수 있으며, 거기에 작용하는 여러 영향 인자에 따라 수없이 많은 방향이 가상되기도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불변의 것, 참나적인 것 또는 영속적인 것으로 파악하려 하는 전통의 일단면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溪流의 작은 물줄기가 큰 江을 이루어 흘러 가듯, 변한다는 사실로서, 歷史過程으로서의 傳統의 모습에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우리가 傳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의 興亡盛衰·死滅의 역사 과정을 지닌다. 예를 들면 韓國文化의 빛나는 전통으로서 한글의 역사와 같은 것이다. 創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에는 탄압·소멸·소생·개신 등 허다한 역사적 우여곡절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傳統도 變化의 긴 과정을 지닌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으며 興이란 亡에 대한 단절이었고 盛은 衰에 대한, 우승은 패배에 대한 斷切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傳統을 변하지 않도록 매어 두려는 일이나 그것의 일시적 형식에 구애 받는 것이 얼마나 숙절없는 가를 느끼게 된다.

현시점의 열등한 것에 대한 斷切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傳統을 논위하게 된다. 현시점의 生活에서 不合理的 點을 시정하고자 할 때 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닌 과거의 傳統은 적어도 과거 어느 시점에서의 상황을 만족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 그 點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하는 敎訓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傳統의 모습을 거울로 대하게 된다.

3. 傳統은 開拓者의 창조물인 동시에 시대의 共有物이다

轉換이란 維持와 破壞의 상극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 크기의 차이나 농도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결국은 팽팽한 대립으로부터 유지를 점멸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전환이다.

歷史에는 轉換期가 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産業革命 같은 것 또는 自由主義·民族主義의 대두, 思潮上 浪漫主義·事實主義·印象主義 등은 현상 유지에 대한 개혁의 승리인 것이며 이로 인해 이루어 지는 역사적 전환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世上事가 연속되어 변화한다는 표현보다는 계속 파

괴되어 조금씩 斷切되어 간다는 표현이 수긍하기에는 쉬울 듯하다. 즉 線에 비유하면 點線으로 된 曲線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지닌 傳統도 사실 이러한 破壞者와 그들에 동조하여 開拓의 소지를 만들어 낸 사람들의 공헌이라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時代의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같이 하여 공유할 수 있었다면 필시 傳統으로 승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요즘의 현대적 헤어 스타일이라는 것도 전래의 머리 스타일인 상투를 자름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의 한글도 한자를 사용하던 사회의 인습과 반발을 패퇴시킴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통이라는 것도 기실 앞선 전통에 대한 그의 파괴 행각을 감안한다면, 이 전통마저도 새로운 전통에 의해 파괴되리라는 깊은 암시를 보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몇개의 의문을 갖게 된다. 그 하나는 모든 것이 자주 파괴되고 단절되어 간다면 결국 傳統도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의 기존 전통이 파괴되어 새로운 전통이 형성될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판별되어 공감을 지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에 있어서 파괴나 단절이란 말은 당연히 창조를 수반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이름이다. 그러나 항용 創造物 繼承이라고 할 경우 원형을 다치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파괴라는 의미와 창조라는 의미를 동시에 부각시키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실하게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다. 사실 創意力을 앞세운다면 繼承이라는 의미는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이며 계승에만 역점을 둔다면 다른 한쪽의 상대적 의미 감소를 가져 온다. 傳統의 흐름 가운데서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 남아 그것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 것은 거기에 내포된 創造的精神과 時代의 合理性일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전하여 진다는 사실이다. 형식과 내용이 바뀌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흘러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傳統이라 부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일시적 流行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새롭게 형성되는 傳統이 과연 좋은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일 개인의 행위가 그 기본이다. 개인의 올바른 행위에 대한 타인의 긍정이 있어야 하고 좋지않은 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을 경우에 사회의 바른 발전이 예상된다.

일단 사회가 변화를 싫어하는 保守的 경향을 띄거나 진취적 경향을 지니지 못한 가치로 존중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긍정이건 부정이건 평가를 내리는 측에 관건이 있다. 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회 기반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좋은 傳統을 형성 또는 보존해 가기는 어렵다. 질 좋은 個人과 이들이 만들어 낸 사회의 연대적 共感을 확충하는 일은 확실히 중요한 사항이다.

4. 傳統은 因襲과 구분되어야 한다.

傳統이 무너지거나 새로이 形成되는 데는 대다수인의 힘을 바탕으로 하겠으나 근본 요인은 一個人 또는 불과 몇몇 사람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새로운 것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의 생각은 그것이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다수인의 기호에 편승하여 힘을 얻는다면 文化的 혼돈에 따르는 문제를 낳게 된다. 무분별한 外來文化의 受容을 경계함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의 위치가 판별되지 않으며, 더구나 惰性에 젖어들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여 훌륭한 傳統이 다수의 좋지 못한 풍조에 의하여 파괴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좋지 못한 풍조가 전통인양 생각되어 보존되는 경우가 생긴다. 역사상의 因襲과 같은 경우다. 그것이 타파되기 전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인습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깊고 깊은 타성의 늪으로 부터는 문화발전의 추진력으로서의 創意性을 기대할 수 없으며 忍從의 울안에 갇히게 됨으로써 드넓은 문화적 지평을 내다볼 시야를 잃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傳統再考라는 말은 조금도 새삼스럽지 않다. 무분별한 傳

統再演은 또하나의 因襲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朝鮮時代 양반과 常民, 서얼의 차별대우가 두뇌의 활용을 극소화시킴으로써 나라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었음은 익히 아는 바다. 양반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겠으나 크나 큰 因襲의 하나로서 역사에 남는다.

傳統은 生成된다고 밝힌 바와같이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傳統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過去의 因襲的인 것을 반복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模寫나 應用에 그치는 것이라면 결국 다른 하나의 因襲을 만들어 내는 것밖에 안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의 호응을 얻는다면 필시 因襲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유는 應用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그 자체가, 좋은 文化의 성립은 성실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다는 傳統의 교훈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참고서를 보고서도 解答을 틀리게 쓰는 셈이다.

어려운 비유가 되겠으나 우리의 일상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의 내력을 음미해 보자. 그 연원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고추의 전래로 김치 맛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며 기타 첨가 조미료에 따라 또한 맛이 달라졌을 것이다.

김치의 원형을 찾아 고추나 각종 조미료를 첨가시키지 않음으로써 傳統을 再現하는 행위와 맛을 내기 위해 고추라는 요소를 첨가하여 더욱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었던 행위는 일순간에 비교된다. 개선된 맛이 옛 것에 못 미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能力과 社會共感에 관한 일로 접어 둔다면, 전자는 踏襲과 모방이며 후자는 創意的 개발이라는 점에서 비교된다.

傳統적인 것에는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韓國의 인 멋이나 아름다움 또는 思惟 등을 두고 이렇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素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形象化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으며 傳統美의 創造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消極的 立場을 합리화 시키기도 어렵다.

韓國美의 傳統的 특징으로서 古美術에 나타나는 無關心性이나 無計劃性을 들어 디자인 素材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미 計劃에 의한 無計劃性 또는 의도적인 無關心性과는 차이를 들어 낸다. 그들은 단순히 그 자신의 心性에 따른 뿐이었지 無計劃性이나 無關心性을 염두에 두었을 리 없다. 傳統을 재현하겠다는 慾氣를 지닌 것도 아니다. 寂照美나 哀傷의 美라는 견해도 세찬 힘의 표현에 역점을 둔 高句麗人을 생각한다면 그저 한동안이었겠다는 인상을 준다. 古來로부터 朝鮮에 이르기까지 왕조마다 시대마다 美의 特質이 있는 것처럼, 美의 形式과 내용도 時代環境에 따라 바뀌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같이 傳統에 대한 一義的 所見만을 가지고서는 傳統의 깊고 넓은 사항들을, 대신 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現代라는 狀況下에서 傳統再現만을 고집한다면 필시 새로운 因襲이 태어나고 만다.

5. 文化의 普遍性과 世界性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양복이나 헤어 스타일은 우리 나라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인이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世界人의, 現代人의 공유물이기 때문이다. 미국·불란서·일본, 어느 나라든 그들의 고유한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이나 사용하는 건물도 어느 특정 국가의 전용 스타일이 아닌, 現代人의 現代建築인 것이다. 우리가 고유한 韓服을 대중화하지 못하고 상투를 틀지 않았다고 해서 서양 문물에 압도되어 있다는 생각은 일방적인 被害意識이다. 어느 나라든 고유한 것을 생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현대적인 것을 통하여 文化的 連帶感을 느끼며, 이러한 普遍性을 통하여 世界 속의 親和力을 지니게 된다.

普遍性보다는 特殊性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까. 文化는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 內容에 있어서 現代의 普遍性을 잃을 경우 文化의 比較가 어려워진다.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特殊性으로 취급된다. 아랍인들은 특별한 기능을 지

닌 고유한 복장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로라면 잠자는 服飾文化다. 패션도 創意力을 요하는 것으로서 큰 文化의 底辺이기 때문이다. 자기 것만을 고집함으로써 일견 호기심에 찬 눈길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저들과 대항 경쟁하여 比較 優位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現代의 立場, 現代人이 공통되게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文化를 만들어 낼 때 民族文化의 卓越性을 인정받는다. 찬란한 古典文化를 가진 이집트·그리스인을 지금도 가장 우수한 文化人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위치에 서려면 지금 상황에서 새로이 文化를 우수하게 暢達해야 한다.

文化는 相互交流됨으로써 普遍性을 지니고 또한 발전한다. 예를 들면 이슬람文化가 西歐의 中世文化에 비해 우수한 점은 사라센人의 독창에 의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라 한다. 이슬람世界에 포섭된 인도·페르시아·회람·유대 등의 기성문화로 형성된 世界文化인 점이 탁월했다는 이야기다. 찬란한 建築의 遺産을 지닌 이탈리아·그리스 사람들이 오늘날 그들의 現代建築에서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神殿을 고집함으로써 祖上의 德이나 보려 한다면, 차라리 憐憫의 情이 앞설 것이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 現代狀況에 맞지 않는 어휘에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慕지기가 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文化의 普遍性만을 고집함으로써 文化의 特殊性을 배제하려 해서도 안된다. 韓國이라는 地域的 條件으로서 風土와 國民性과 같은 것이 있다. 쉬운 표현을 한다면 열매의 자수를 서울 지방에 옮겨 심을 수 없는 것처럼 文化交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

舊正이 쉬 없어지지 않는 것, 김치·깍두기·된장찌개가 있고 따뜻한 온돌이 있는 것은 특수성이 존재하는 예라 하겠다.

6. 마이다스大王의 손

韓國에서 古建築에 대한 모더니스트가 가해진 몇개의 건축물을 보고서 저것은 中國의이다, 日本의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옳은 이야기다. 그러한 모더니즘은 日本人이나 中國人이 먼저 했으니깐. 그러나 그러한 것조차 外來에 의존한다면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 혹 우리 고건축의 전통적인 특징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모델에 더욱 近接함으로써 겨우 祖上이 만들어 낸 遺産으로 명맥을 유지하려는 것도 딱한 일이다.

모더니즘을 하게 되는 이유는 韓國的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韓國的인 느낌은 어떠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형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實相을 대할 때, 한국인의 얼굴·옷매무시, 한국의 自然, 傳統的인 民家, 木工器物, 생활관습 등등, 우리는 무심코 그것이 한국적임을 수긍한다. 그러나 기와집이나 工藝品 등 앞선 사항들을 본뜬다는 인상을 받는 모디파이된 건물에서는 순수 한국적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원형으로 환원한다면, 中國·日本, 심지어는 르네상스 스타일이나 그리스 神殿까지도 도달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는 平行이 移動하는 現狀에 따라 얼마든지 순환적 해석이 가능하다.

느낌을 온전히 전달하는 방법은 원형을 재현하는 길이며 원형에 가까울수록 앞서와 같은 확대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형에서 멀어 질수록 그것은 다른 느낌이 되어 버리고 만다. 韓國的인 느낌을 얻기 위해서 원형의 재현에 충실한다면 創意性을 상실하게 되며 원형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한국적인 느낌을 상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가는 시이소 놀이와 같은 장난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創作性을 희생하면서까지 느낌의 번안에 매어 달릴 이유가 없다. 文化遺産이 소중히 保存되는 한, 한국적인 느낌은 그 實相을 통하여 그 속에 간직되는 것이다. 또한 韓國的인 느낌이 先祖들에 의하여 生成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現代狀況에 맞는 새로운 느낌으로써 氣概와 理想에 가득찬 韓國的인 것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現代建築의 모티브로서 古建築에 손을 대었을 때, 마이다스大王의 손에 의한 것처럼 그냥 生命力을 잃고 만다.

古建築이란 지나간 時代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필연적인 것이지만 現代에 옮겨다 놓을 경우 그 필연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 時代狀況에서 조금도 거짓이 없던 眞實된 건물이 모더니즘에 의하여 虛構와 虛飾으로 가득차게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防水가 여의치 않을 당시에는 기와를 씌우는 것이 비를 가려주는 훌륭한 방법이었으며 이를 위해 지붕은 경사지어야 한다. 木造기둥은 風雨에 쉬부패되므로 처마를 길게 뽑아야 수명도 길다. 처마를 길게 뽑으려면 柱心包든 多包든 그 켄탈레버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법이 필수적이다. 어디 하나 거짓이 없다. 여기에 비하여 아스팔트 지붕 防水 위에 기와를 얹고 콘크리트 기둥에 처마를 뽑아 공포형태를 단순하게 하여 흉내를 낸 건물은 眞實性이 배제되어 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의도하는 한국적인 느낌도 결국 구하지 못하고 마는 셈이다.

7. 사실상 우리의 創意力은 한계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온돌과 같은 것은 어떠한 創造의 노력에 의해서도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되지 못했다. 그것은 대다수인의 生活慣習이 그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慣習을 고치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그보다 더 나은 것, 대다수인의 호응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創意力은 일단 한계를 지닌 셈이 된다.

그것은 어느 時代 어느 狀況이건 공통되게 나타난다. 아치나 볼트에 의한 구조법을 하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은 鉄骨이나 철근콘크리트 출현으로 국한된 사고를 버려야 했다.

醫學의 발달로 치유에 대한 미신적 태도를 버리기까지 무당 살풀이는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느 시점에서나 상황은 제한된 것이어서 쉽게 그 이상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오늘날 現代建築의 어휘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반복 사용되어 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철근콘크리트나 鉄骨構造에 대체되는 대중적 구조는 아직 없다. 高層建物の 수직교통 수단으로서

엘리베이터보다 더 편리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계·설비·재료뿐만 아니라 生活慣習이나 造形的 태도마저 그러한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고 더욱 편리해져야만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限界의 狀況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실 파괴되어 없어 지거나 새롭게 대체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반복되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傳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유의한다면 지난날 좋지 못한 풍조에 밀려 없어져 버린 것 가운데서도 오늘날 그 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다시 되살려 낼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生活慣習·思考方式·哲學 등 有形·無形의 것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創意力이 한계에 부딪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면 지난 날의 훌륭한 生活哲學을 우리의 현대생활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으며, 建築哲學으로 참고할 수도 있는 점이다. 自然에 순응하는 마음이나 非整齊的인 면에 호감을 지닌 造形的態度는 그 一例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미 없어져 버린 古語가 그 아름다움과 意味의 함축성이나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生活言語化 되거나, 陵에서 발굴된 遺物의 裝飾 무늬가 수천년을 격한 오늘의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점은 창의력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韓國的인 느낌을 되찾아 내는 一例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우리가 지닌 더 좋은 것을 놔두고서도 그 보다 못한 것을 찾는 데 궁색해 질 수도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인해 더 밝은 내일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안개 속을 간다거나 할까. 도무지 荒雜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른 판단으로 대처할 수 있는 慧眼을 지닌 旗手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시점이라 하겠다.